



궁·금·힘·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사 양 ●

Q 주위에서 가성소다(양젓물) 소독이 좋다는데 희석배율은 얼마 정도여야 하며, 분뇨처리시 농작물에 지장은 없는지 돼지에게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이오형 (주)엘비씨 대표>
가성소다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면서 소독 효과가 좋은 소독약입니다. 그러나 독성이 강해서 사용시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희석 배율은 2%(물 반 드럼에 가성소다 2kg)으로 희석하고 살포 방법은 우선 돈분을 제거한 후 가성소다를 희석하여 빈 돈방에 살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돼지가 없는 빈 돈방에만 사용해야 하며, 한나절 후 고압 세척기로 세척을 하면 돈분이 잘 제거 됩니다.

가성 소다는 강 알칼리성이라 돈사 수세 소독용으로 사용한 것이 분뇨를 통해서 나갈 경우 땅의 산성을 예방 할 수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에서는 오니를 키우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사용합니다. 사용시 주의 사항은 첫째 사람이 눈이나 손등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둘째 돈사에 살포 한 후한나절 후에는 고압 세척기로 수세를 하여 철제의 부식을 막아야한다. 세째 희석 배율

을 2%로 맞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Q 모돈이 분만 전과 이유 후에 변비 증세를 보이는데 어떠한 요인 때문입니까?

A <심금섭 천안연암대학 축산과 교수>
돼지가 변비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사료의 상태, 생리적 변화 또는 질병감염이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료의 상태라 함은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없는 상태에서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생리적 상태는 분만전후의 호르몬 변화에 따라 즉, 유선으로 몰려가는 수분의 양을 물섭취가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가능해집니다. 질병의 감염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열증상과 함께 변비 증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는 분만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와 모돈의 신체상태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충분히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Q 여름 포유돈관리 좀 알려주세요. 분만을 하고 나면 힘들었는지 밥을 안먹습니다. 임신 돈도 그렇고 해서 약을 놓고 있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영양제, 엘로신(호흡기.설사) 등 약 3가지를 놓는데 잘못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시

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여름철엔 일반적으로 식욕부진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체온 체크를 해보시고

1. 체온이 높을 땐 직장관장(고무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항문에 직접 주입 하는 방법)으로 물이 한바퀴 돌아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고, 다음엔 광범위 항생제(암피실린제 등), 해열진통제, 대사촉진제 등으로 3~4일간 치료하면 거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2. 체온이 정상일 때는 칼슘제를 30ml~50ml를 2군데 나눠서 근육주사하고, 혹 위궤양이 심하거나 중독증일 때도 체온이 높지 않습니다.

Q 비육사 약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겐타마이신이 30kg이상 넘어가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는 비육사 주사약을 겐타마이신하고 pps하고 진통해열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약을 써야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1. 농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가급적 5가지 이내로 줄여서 사용하고, 잘 듣는(감수성이 좋은) 항생제란 그 농장에서 자주 쓰지 않던 약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항생제를 6개월~1년 정도 사용하다 잘 안들을 때는 전혀 다른 항생제로 바꾸고 지금 쓰던 약제는 나중에 다시 쓰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2. 겐타마이신이 30kg이 넘어가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겐타마이신이 오래된 항생제인 것은 사실이나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농장이라면 오히려 효과가 광범위

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 지속기간이 짧은 단점은 있지만 농장에서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3. 비육사에서 호흡기 치료 방법도 주로 파스튜렐라성 폐렴과 홍막폐렴일텐데 혼합감염 형태가 많다 보니 약제 감수성이 잘 안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암피실린제나 플로르페니콜제, 세티오퍼제, 퀴놀린계 등으로 농장에서 개체별 주사로 직접 찾는 방법이 현명하고, 소론은 도움이 안되니 거담제를 대신 사용해 보시지요.

Q 돈사 내의 밝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이 좋다면 하루 몇 시간정도 켜두는 것이 좋습니까.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불의 밝기는 번식돈에서 발정단백질(Estro protain)을 합성시키는 전구물질이 되어 지는데, 최소 50LUX 이상으로 16시간 정도는 밝혀줘야 됩니다. 적정 조도는 300LUX이고요, 10LUX 이하나 1,200LUX 이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육성돈에서는 서로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너무 밝으면 증체에 지장이 되고, 사료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밝기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밝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돼지의 시력은 0.017~0.07로 낮지만 사람에 비해 명암을 담당하는 간상세포가 발달하여 움직임 등의 정도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깔의 식별은 힘들어 일부 색맹(특히 적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번식돈사를 보온 덮개 등으로 덮는다든지, 어두운 색깔의 윈치커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겨울을 지난 후보돈들이 발정이 잘 안오는 것 등이 좋은 예입니다.

● ● 질 병 ● ●

Q 분만 10일 전에 모돈에게 철분주사를 놔주면 분만자돈에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또 철분 광고를 보니 철분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철분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모돈에게 철분 주사는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양을 주사 해주는 것이 좋은가요?

A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모돈의 철분주사법은 아마도 사람의 임신부가 철분을 추가로 섭취하여 얘기를 건강하게 낳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모돈의 임신기간 동안 철분이 부족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면 철분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돼지는 사람과 달리 먹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잖아요. 임신돈의 사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식욕부진이 발열, 질병이나 모르는 원인으로 오랜 기간 진행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질문은 분만 10일전 주사 방법으로 분만전까지 10일 정도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임신중 태아의 요구에 의해서) 포유중 젖을 통하여 보내려는 시도는 이때는 이미 분만한 모돈이 철분에 대한 요구량이 적게 되어 사실은 모돈에 철분이 남는다 하더라도 남는 것들은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오줌으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돈이 포유기간 중 요구하는 철분은 모돈으로 부터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포유돈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필요한 만큼 자기 몸에서 흡수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사해 놓으면 주사

부위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간이나 신장에서 남는 것들을 걸러내느라 커다란 무리가 따릅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주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유중 모돈이 발열과 함께 온몸이 벌겍게 두드러기처럼 발진이 일어나고 사료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돈단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돈단독도 변형이 있는지요? 급한 마음에 일단 페니실린 주사제를 투여하였습니다.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황윤재 금오BPC 상무>
돈단독 증상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돈단독은 돈군에서 비육돈이나 후보돈 등 초산모돈에서 발생하기가 쉬운데 산차가 많은 모돈이나 3개월령 이전의 돼지에게서는 잘 오지 않습니다. 증상은 관절염형으로 오는 예도 있고 피부에 특이한(다이아몬드형이라 하지요) 담마진 형태로 오거나 또는 심급성형으로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경우(삼내막염형)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열이 나고,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경우만 가지고 돈단독이라 의심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감염증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무엇이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우선 해당 모돈의 산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또 직장체온을 꼭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어떤 감염증이 의심된다면 페니실린 계열(경험적으로는 암피실린 주사제와 같은 속효성제제를 주사하는 것이 좋겠네요)의 약으로 3~4회 치료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돈**